

글과 사진. 김진만 사업운영과

베트남 광남성과 MOU 맺고 결핵퇴치사업 첫 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대표이사님의 소개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광남성 인민의료청과의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차 2박 4일의 베트남 출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출장에는 우리협회 이준근 사무총장님과 광남성 성도 탐키시와 업무협약식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관계자들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첫 출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연꽃마을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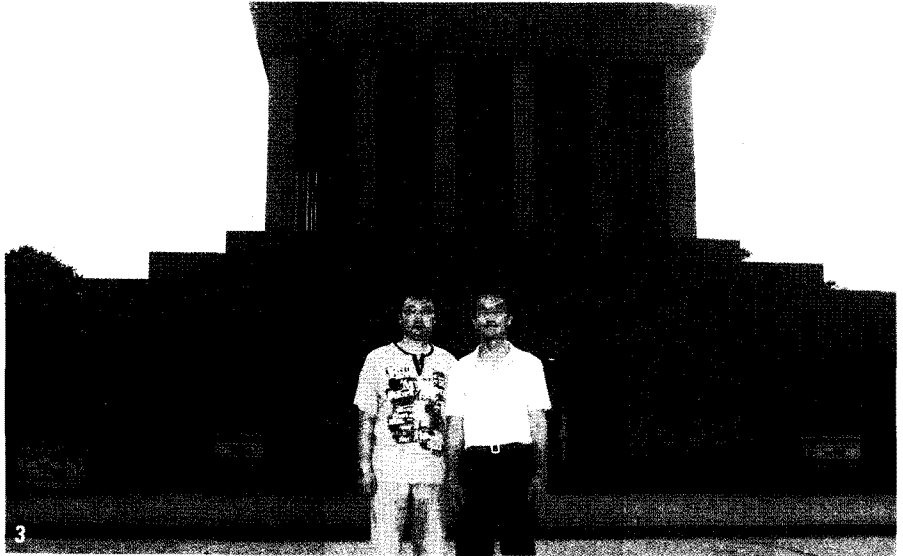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국토를 가졌고 인구는 8천 6백만 명이며, 일인당GDP는 1,174\$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며 많은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으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WHO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결핵 상황은 2009년도 기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 당 333명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결핵환자가 많은 나라이다.

출발하는 일요일 아침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베트남에도 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인터넷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비를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비를 맞겠구나 생각하며 호치민으로 향하는 베트남 항공에 탑승했다. 오래된 기종이라 좌석은 딱한 사람 앉으면 앞뒤 양옆이 꽉 차는 크기여서 4시간 30분 비행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베트남 출장길 고난의 시작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예보와 다르게 비 대신





1 공항에서 베트남 측의 환대를 받고 있는 이준근 사무총장 2 왼쪽 광남성 수석부성장 부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스님, 본회 이준근 사무총장 3 바딘광장의 호치민묘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4 호치민공항 면세점 모습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업무 차 방문하는 광남성은 베트남의 5개 직할시와 58개의 성 중에 중부에 위치한 인구 130만 명의 작은 성이며 성도는 탐키시라는 곳인데, 이곳으로 가려면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낭공항으로 1시간 여의 비행 후 그 곳에서 2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다낭공항으로 이동해 공항 활주로 내리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과 더위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는데, 이 더위는 일정 내내 계속되어 베트남 출장의 고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우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광남성 수석부성장의 부인과 탐키시 직원이 회환을 들고 우리 일행의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환영인사를 한 후 광남성 수석부성장 부인께서 마련해 주신 베트남식 저녁을 대접받았다. 처음으로 접한 베트남의 음식은 특이한 향신료가 들어 있어 보통의 한국사람이라면 결코 먹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고난의 시작이었다.

식사 후 이번 출장의 숙소가 있는 호이안으로 향했다. 호이

안은 다낭에서 버스로 4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호이안은 베트남전 당시 우리 해병대의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진 휴양지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출장기간이 짧아 돌아보지는 못했다.

숙소에 들어와 여장을 풀고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서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한국시간 오후 11시에 숙소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둘째 날은 중요 일정이 많아 아침 일찍부터 광남성의 성도 탐키시로 1시간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을 해야 했다. 탐키시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네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은 없으나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와 수량이 풍부한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인터넷 정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어지러운 교통문화와 오토바이들 때문에 13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필자에겐 운전 면허를 쥐도 운전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에는 함께 방문한 연꽃마을 일정을 따라 광남성 불교협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광남성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하여 환영 행사 후 방문 목적이었던 광남성 인민의료청과 베트남 광남성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광남성 결핵병원장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업무협약식 절차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협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협약식 증인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게 보통의 관례인 듯 보였다.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협약식이었다.

업무협약 후 탐키 시청으로 이동하여 연꽃마을과 탐키시의



5 업무협약을 마친 베트남 광남성 인민의료청 총감독 (우측) 6 광남성 결핵병원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준근 사무총장 7 다낭의 해변가 8 다낭공항 외부 풍경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협회의 결핵퇴치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9 하노이 시내 모습

베트남 연꽃마을 설립 업무협약을 참관하고 황남성 수석부성장과 탐키시장, 황남성 외무국 부국장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늦은 시간 호이안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쳤다. 돌아오는 날 연꽃마을 관계자들은 이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 일행은 다낭공항에서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국내선을 타고 또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으로 이동하여 새벽에 돌아왔으며, 먼저 출발하는 우리 일행을 위해 호이안에서 다낭공항까지 탐키 시장님께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주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베트남의 관광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베트남 중부지방의 낙후된 시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더욱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특히 베트남 국제협력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성과도 있었던 만큼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협회의 결핵퇴치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